



福音新聞 /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6年4月1日 (水) 第858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発行人 / 張慶泰・編集人 / 鄭守煥

印刷所 青丘文化社

부활절
설교

부활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20:1~18>



이명신 목사 (오사카교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얼어 있던 땅이 숨을 쉬고, 사라져 보이지 않던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봄이 아니라 “끝” 처럼 느껴지는 아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침, 건강의 경고를 들은 아침, 오랫동안 간직해 온 꿈이 무너진 아침입니다.

부활절 첫 새벽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그날은 승리의 환호가 울려 퍼지는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는 시간, 슬픔과 상실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직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돌은 이미 옮겨졌고, 죽음의 권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에야 믿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상황이 밝아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곧 바로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구원의 길이었고, 무덤은 끝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한번의 기적이 아니라 “첫 열매”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감동은 빈 무덤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은 관계의 회복이며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믿음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추억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눈물 흘리던 한 여인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 생명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전히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뉴스, 경제의 불안, 관계의 갈등, 개인의 고독이 우리를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 상처 속에서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곧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 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전남교우회

제27회 성경세미나 개최

「존엄~이웃을 내 몸처럼~」 테마로

전국교회여성연합회(교육국)·관동지방교회 여성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제27회 성서 세미나를 2월 11일(수/휴일)~13일(금)에 요코하마 교회와 가와사키 교회에서 개최하였다.

개회 예배에서는 멘센디크 제프리목사(오버린대학 부교수 겸 교목, 미국 연합교회 목사, 선교사, 일본기독교단 동북교구 센터 에마오 주사)가 ‘복음을 기념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개회 예배 후, 제프리목사에 의한 ‘존엄의 배움~ 타인과 자신을 소중히 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강연과 그룹 워크가 진행되었으며, 약 3시간의 강연이었으나, 그룹 워크에서 참가자들끼리 실제 경험을 나누며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면서...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다.

강연 후에는 요코하마교회 여성회의 정성 가득한 맛있는 저녁 식사로 사랑의 만찬을 함께 하고, 이후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 시간에는 5개 지방 여성회의 기도 과제도 함께 나누었다.

둘째 날 아침 기도회에서는 박영자 목사의 “친구라 부르리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으며, 기도회 후에는 두 번째 그룹 워크를 진행했다.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성경 구절이 주어졌고, 그 내용 속에서 ‘존엄’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나누었다. 발표에서는 몇몇 그룹이 즉흥 연극을 선보이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이명중목사의 요코하마 교회 역사, 이시바시총무의 요코하마 선교 역사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으로 출발했다. 점심 식사 후 요코하마 해안 교회, 요코하마 개항 자료관, 요코하마 시로 교회를 방문했다.

3일째는 가와사키 교회로 이동하여 교회 견학과 최강이자씨의 이야기(중요를 용납하지 말자!)와 인솔자와 함께 현장 학습, 송부자 명예장로(가와사키)의 말씀과 김신야 목사의 가와사키 교회 역사/현황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폐회 기도회를 드렸다.



그리고 가와사키 교회 여성회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여 제공해 주셨다. 모든 것에 감사! 알찬 내용과 감사와 웃음이 가득한 2박 3일의 세미나였다. ‘존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보고 : 교육국장 이호자(고쿠라교회))

西新井教会

최청락장로 장립식 거행

재일2세로서 다섯번째 장로로 장립



2026년 2월 8일 주일 오후 4시반부터 니시아라이 교회에서는 최청락장로의 장립식이 관동지방회 각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엄숙히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근식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총회장 장경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 (고린도후서4 : 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장로 장립식은 관동지방회장 김신야목사의 집례로 진행되었으며, 소개, 서약, 안수, 선포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니시아라이교회의 시무 장로로 장립된 최청락장로는 1956년 일본에서 태어나 1985년부터 집사로 오래 섬겨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송두희권사와 3남 1녀가 있다.

千葉教会

이학규장로 장립식 거행

권사취임식, 명예권사추대식도 겸해



2026년 2월22일(주일), 치바교회에서는 이학규 장로 장립식과 고순열권사 취임식, 박순절 명예권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관동지방회 각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예식에는 먼저 당회장 김명균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총회장 장경태목사가 “거룩한 손” (출17 : 8~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관동지방회장 김신야목사의 사식으로 장로 장립식이 진행되어 소개, 서약, 안수, 선포로 이어졌다.

이번에 치바교회 시무 장로로 장립받은 이학규장로는 1965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집사로 섬겨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고순열권사와 2남1녀가 있다.

第58回 総会期 委員会組織

●常設委員会

위원회	委員長	書記	會計	委員
宣教	李重載	韓承哲(準)	梁律子(準)	李明忠、金明均(名古屋)、宋南鉉、辛治善
教育	蔡銀淑	姜玲玉	咸美羅	金聖泰、石橋真理恵、李成俊
社会	申容燮	咸美羅(準)	金恵心(準)	金伸禹、李大宗、李相徳、金承熙 佐藤信行(準)、尹善博(準)
神学考試	朴栄子	李明忠	崔亨喆	李珍容、李明信、金承熙、林明基(準)
信徒	尹鐘憲	金聖泰	梁律子(準)	具滋佑、梁陽日、金炯振、趙顯奎、李重載(準)、崔美恵子(準)、李銀珠(準)
憲法	中江洋一	柳町功	黄文錫	金根湜、金秀生、崔美恵子、尹善博
救済基金	金勝正	吉井秀夫	金秀生	姜章植、尹鐘憲、李惠蘭
財政	吉井秀夫	金光成	高在道	金恵珍、崔美恵子、崔日承
監査	申大永			李大宗、森克之

●特別委員会

위원회	委員長	書記	會計	委員
平和統一會議準備	李明信	金大賢	崔亨喆	金光成、申大永、金成彦
憲法·規則等改正檢討	柳町功	李正子(準)	黄文錫	中江洋一、高文局、李明忠(準)、尹善博(準)、吉井秀夫(準)、李珍容(準)、崔美恵子(準)
カナダ長老教会 在日宣教100周年	趙顯奎	孫信一	鄭詩温	金成彦、森克之、金恵榮(準) 金炳鎬(準)、David McIntosh(準)

중부지방회

합동 신도 연수회 개최

~미우라아야코의 신앙과 문학~ 주제로

중부지방회는 매년 춘분일에 합동 신도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도 3월 20일, 권요셉목사(케이센그리스도교회 코다이 라체플 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나고야교회에서 신도 합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개회 예배에서는 중부지방회장 이진용목사가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롬1:20)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강연은 오전과 오후에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미우라 아야코의 『같이 있었다』 ~아야코를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야코의 생애와 투병, 입신, 결혼, 그리고 그녀에게 영향을 준 세 인물이 소개되었다.

2부에서는 "선교사, 미우라 아야코~미우라 문학은 선교 문학"이라는 주제로, 미우라의 문학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소개되었으며, 또한 교양 부문이나 화해를 위해서도 활용된 사실이 소개되었다.

강연 후에는 그룹별로 모여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는 중부 지방회에 소속된 8개 교회, 약 40명의 신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서남지방회

정초 사경회를 개최

'셀수 있는 사람들의 복음' 주제로

2026년 3월8일(주) 오후4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 하카타교회(라이브 방송 병용)에서 폭설 예보로 연기되었던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가 열렸다.

강사는 윤선박목사(하카타교회), 주제는 <셀 수 있는 사람들의 복음>(삼하 24장1절~10절)이었다. 프로그램은 오후3시40분부터 접수와 찬양의 시간, 오후4시부터 5시50분까지 사경회, 오후6시부터 6시30분까지 도제직회 순서로 열렸다.

강사인 윤선박 목사는 서남지방회 선교100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서남지방회의 정체성을 규슈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서로 도우며 복음을 전해온 신앙공동체라고 정의했다.

그후에 지방회장 윤선박목사의 사회 아래 각 교회의 현황 보고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라이브 방송을 포함해 41명이 참석했다. (보고 : 신치선)



일본선교협회

제10회 한일합동기도회 개최

'역사에서 배우는 리바이벌' 테마로

2026년 3월 8일(주일) 오후 3시, 일본선교협력회 주최로 제10회 한일합동기도회가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전후 80주년, 역사에서 배우는 리바이벌"이었다. 기도회는 가나자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사로 하마다 야스히로(袴田康裕)목사와 홍이표(洪伊杓)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하마다 야스히로 목사는 「전전(戰前)·전중(戰中) 기의 일본과 한국 교회—두 갈빈주의자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당시 교회가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한 이유는 어디에서 신학을 배웠는가가 아니라, 그 신학이 얼마나 깊이 내면화되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어진 홍이표목사의 강연은 「일본 제국이 남긴 '자기 절대화'의 유혹과 오늘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자기 절대화가 한반도 정치에 남긴 역사적 교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원산 대부흥운동을 언급하며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소개하고, "새로운 리바이벌의 역사는 자신을 절대화하던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 후에는 △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한일 양국민의 화해와 양 교회의 선교 협력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일본 선교 1%의 벽을 넘기 위한 기도 등을 주제로 각 대표가 기도한 뒤,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합심기도를 드렸다.



서부지방회

신도수양회 개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제로 강의

서부지방회 신도수양회가 2월 22일(일)부터 23일(월)까지 한국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고베 '시아와세노무라'에서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에서는 무코가와교회 양영우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주제로 김원태목사의 세 차례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유머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되었다.

또한 서부지방회 청년연합회에 의한 찬양 시간도 마련되어 주 안에 있는 은혜로 가득 찬 수양회가 되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단 후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였으나, 51명의 참가자가 함께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깊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은 큰 기쁨이었다. (보고 : 니시노미야교회 손신일목사)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부봉추장로가 소천 교회 봉사 외에 민단 활동도 활발하게



2026년 2월 15일,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부봉추장로가 소천하여 구자우목사의 사식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향년 77세였다.

故·부봉추장로는 1949년 한국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1970년에 세례를 받고 2010년에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장로로 취임한 후, 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왔다.

침술을 통해서 봉사하면서 민단의 활동에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도 제주도 도민협회 회장 및 대한 노인회 동경 지부 회장도 역임하였다.

고베동부교회

이운구 명예장로 소천 '색동의 집' 설립에도 진력



2026년 2월 23일, 고베 동부교회의 이운구 명예장로가 한국 서울에서 소천하였다. (향년 92세)

고(故) 이운구장로는 1933년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 2000년에 고베 동부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은 후 2004년에 명예장로로 추대되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고베동부교회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으며,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색동의 집'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제1회 상임위원회 개최 목사·장로 연수회 재개는 일정적으로 곤란

2026년 3월 24일, KCC회관(오사카)에서, 제58회기 제1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상임위원 24명 중 21명이 출석하고, 특별위원장 3명, 전국여성회 총무가 배석하였다.

먼저, 임원회, 각 지방회, 각 기관,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로부터의 보고가 있었고, 이하 안건이 심의되어 가결되었다.

중요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1) 제58회 정기총회 회의록안은 다음 정기총회에서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안에 정정·수정할 곳이 있을 경우에는 서기 앞으로 연락하기로 했다.
- (2) 서부지방회 소속 히로시마교회의 종교법인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수정 요청이 있었을 때 수정하기로 승인하였다.
- (3) 캐나다장로교의 재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할 승인하였다. (김혜영 장로를 준위원으로, 모리 가쓰

5地方会の定期総会案内

<関東地方会 第77回 定期総会>

- ・日時：4月29日(水) 11:00
- ・場所：横浜教会(李明忠牧師)
神奈川県横浜市中区打越39 TEL045-252-8015

<中部地方会 第63回 定期総会>

- ・日時：4月30日(木) 11:30
- ・場所：曲ビジョン伝道所(金炯振牧師)
長野県千曲市大字戸倉2004-7 TEL026-466-6635

<関西地方会 第77回 定期総会>

- ・日時：5月6日(水) 10:00
- ・場所：京都教会(李成俊牧師)
京都市右京区西院北矢掛町20 TEL075-311-5051

<西部地方会 第41回 定期総会>

- ・日時：4月29日(水) 10:30
- ・場所：西宮教会(孫信一牧師)
兵庫県西宮市中殿町4-33 TEL0798-34-0150

<西南地方会 第76回 定期総会>

- ・日時：4月29日(水) 11:00
- ・場所：別府教会(趙顯奎牧師)
大分県別府市石垣東3-3-25 TEL0977-27-2564

유키 장로를 위원으로)

(4) 신도위원회로부터 7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청년주일' 예배 개최에 대하여, 총회장 명의로 각 교회에 요청문을 송부함이 승인하였다.

(5)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었던 목사·장로 연수회의 재개에 대하여 일정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장로 연수회로서 개최하는 것과 일정은 7월 19일~20일에 개최함이 승인되었다.



공고 《2026년 총회 장학생 모집 안내》

총회 신학생으로서 각 지방회에서 인정받고 1년이 경과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총회 사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 모집 인원 : 3명
- 지급 금액 : 연간 200,000円/1인
- 지급 기간 : 1년간 (수급자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함)
- 필요 서류 : ①장학금 신청서 ②재학 증명서 ③성적 증명서 ④이력서 ⑤당회장 추천서 ⑥총회 신학생 인정서(각 지방회 시취부) ⑦각 지방회장 승인서 ○서류 제출처: 총회 사무국
- 마감: 2026년 4월 30일 도착 분까지